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14’

### 중소상공인들 수수료 부담 경감 위한

###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개 추진” 공약 발표

- 온라인플랫폼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 항목별 공개, 정부 차원 주기적 수수료 적정성 여부 점검 추진
- 수수료 부담에도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구조 탓에 플랫폼 이탈 어려운 입점업체들 고려
- 중소기업인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 인하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1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입점업체에 부과되는 각종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공개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을 온라인 플랫폼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가 3년 주기로 점검, 조정되는 것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는 판매액의 2%가 넘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항목별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수수료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입점업체들이 플랫폼에서 이탈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입점업체들 측에서만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각종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각 세부 명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이다.

이 후보가 구상 중인 수수료 공개대상은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다.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우려가 적고,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까지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들만 예외적으로 수수료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공개대상 수수료의 범위는 카드수수료, PG수수료,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입점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로서, 항목별 세부 수수료 내역을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후보는 온라인플랫폼으로 하여금 입점업체로부터 지불받는 각종 수수료율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개별 입점업체들이 다른 온라인플랫폼 및 입점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판단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도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입점업체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결국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끝)

담당자 : 정책본부 정책분석팀 신동립 팀장(010-5311-8577)

[참고자료]

-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온라인 플랫폼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호소
  -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배달앱)에 가입한 1,000개 입점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 (2021.3.31.)

[거래비용 및 조건 만족도]

[판매수수료 평균]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공개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업체별 수수료율로만 공개

(단위: %, 천 원)

유통업체 <sup>1)</sup>	명목수수료(율) <sup>2)</sup>								실질수수료율 <sup>3)</sup>
	정률수수료율 <sup>4)</sup>			정액수수료 금액 <sup>5)</sup> (60분)	혼합수수료(율) <sup>6)</sup>		혼합(M)수수료(율) <sup>7)</sup>		
	특약 매입	위수 탁	임대 율		정률	정액 <sup>8)</sup> (60분)	정률	정액 <sup>9)</sup> (1개월)	
TV홈쇼핑	33.9			82,223	26.9	67,592			29.1
백화점	26.3	26.9	19.3				18.0	14,252	21.1
대형마트	20.0	21.8	18.1	19.0			16.7	3,206	19.4
아울렛/ 복합쇼핑몰	18.0	22.1		15.6			15.8	13,154	14.4
온라인 쇼핑몰 <sup>10)</sup>	13.6	13.8	13.6						9.0

## □ Q&A

- 1) 편의점의 거래형태는 대부분 직매입 거래이므로, 판매수수료율 조사대상에서 제외
- 2) 명목수수료는 계약상 수수료로서 정률, 정액, 혼합, 혼합(M) 방식으로 구분
- 3) 실질수수료는 정률, 정액, 혼합, 혼합(M) 등 방식으로 실제 수취한 수수료
- 4) 정률수수료는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판매수수료
- 5) 정액수수료는 상품판매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판매수수료
- 6) 혼합수수료는 일정 금액과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동시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
- 7) 혼합(M)수수료는 정률과 정액수수료 중에서 큰 금액을 부과하는 최저수수료 보장 형태의 판매수수료
- 8) 혼합수수료의 정액수수료 금액: 혼합수수료 중에서 정액수수료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60분 방송분량 기준의 금액
- 9) 혼합(M)수수료의 정액수수료 금액: 혼합(M)수수료 중에서 정액수수료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매장 임대 1개월 기준의 금액
- 10) 쿠팡, SSG닷컴, 위메프, 티몬, GS SHOP, 롯데아이몰 6개사 평균

##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개 Q&A

### Q1. 수수료 공개 대상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공개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보제공과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와 청약 접수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등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우려가 적고,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게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수료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2. 공개 대상 수수료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특정 수수료만 공개하기 보다는 입점업체에게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가 공개대상입니다. 카드수수료, PG수수료,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입점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를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Q3. 수수료 공개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나요?

☞ 온라인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공개하면 개별 입점업자는 다른 온라인플랫폼 업체나 다른 입점업자에 비해 자신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업체도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입점업체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 Q4. 수수료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아닌가요?

☞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과,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거래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응답자 79명 중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입점 시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응답자는 60.8%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자(48명)가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 종류에 대해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은 입점업체(판매자)들에게 상품노출 기회를 높이기 위해 광고비(예:유도광고)와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판매자들은 온라인플랫폼의 광고비용 및 수수료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플랫폼과 협상력의 차이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라인플랫폼-입점업체 간 판매 후 수수료 등의 정산 시 세부내역(예: 카드수수료 등)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입점업체는 정산 관련 세부내역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온라인플랫폼의 수수료 공개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